

지역과 세대 간 여론양극화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과 광주 지역을 대상으로*

박선희**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혜경***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지역 간, 세대 간 여론양극화 현상의 양태를 살펴보고 여론양극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전국이슈에서 실제 지역 간 여론차이는 없었으나 여론지각과 지각편향에서 차이가 있었고, 지역이슈에서는 실제 여론차이가 있었으나 여론지각과 지각편향의 차이가 더 심하게 나타나 여론양극화 현상은 실제 여론의 차이보다는 지각된 여론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부산은 자기 지역여론에 대해 보수편향을, 타 지역 여론에 대해서는 진보편향을 보였고, 광주는 자기 지역여론에 대해서는 거울반사인식을, 타 지역 여론에 대해서는 보수편향을 보였다. 또한 각 지역여론에 대한 두 지역의 지각이 유사하여 상대지역에 대한 스테레오타입화된 태도나 믿음에 근거해 여론지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대 간 여론양극화 현상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모든 세대가 대체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보수적이라는 보수편향을 보였지만, 지역 간 여론지각에서는 이슈에 따라, 세대에 따라 지각편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지역과 세대를 교차 비교한 결과 전국이슈에 대한 실제의견을 제외하고 세대별로도 지역 간 여론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회귀분석 결과 개인의 의견과 지역은 여론 및 여론지각, 지각편향을 설명하는 매우 예측력 높은 변인이었으나 세대의 설명력은 디지털 세대에서만 약하게 나타났다.

주제어: 여론양극화, 여론, 여론지각, 지각편향, 지역, 세대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02-B00368).

** parksh@chosun.ac.kr

*** hancon@pknu.ac.kr

1. 문제제기

2002년 16대 대선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여론은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양상을 띠었다. 우리 사회에서 선거기간에 형성되는 여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역을 중심으로 첨예한 집단 간 양극화 현상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16대 대선 결과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부산지역에서 노무현 후보는 29.6%, 이회창 후보는 66.2% 득표한 반면, 광주지역에서는 노무현 후보 94.6%, 이회창 후보 3.5%로 16대 대선 역시 지역 간 여론양극화 현상이 그대로 재현되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영남지역에서 한나라당의 득표율과 열린우리당의 득표율 차이가 예전보다 작아짐으로써 지역주의가 약화되고 있다는 전망을 낳았지만 의석점유율은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지역주의가 여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준한·임경훈,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대 대선 투표결과는 세대 간 여론양극화가 가시화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였다. 세대에 의한 투표행태가 16대 대선에 새롭게 등장한 현상은 아니지만 그동안 지역 간 차이가 세대 간 차이를 뛰어넘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세대 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새로운 것은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던 젊은 세대가 선거기간에 여론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인터넷을 통해 젊은 세대들은 대중매체 언론이 구성한 여론이나 지역의 지배 여론에 크게 영향받지 않으면서 자신들만의 여론을 형성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여론을 현실 세계에서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대선 과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대선 이후 언론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¹⁾

1) 이와 관련된 대표적 기사로는 판지일보의 “네티즌의 정치학, 그 새로운 패러다임”(95호)과 조선일보의 “대선을 읽는다(1) 월드컵처럼 선거 치른 20~30대”(2002. 12. 20), 중앙일보의 “2030파워 사회를 바꾼다”(2002. 12. 21) 등을 들 수 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젊은 세대라는 담론에 의해 관심이 희석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른 여론양극화 현상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지역 간 여론양극화 현상이 선거기간 동안 특정 정당에 대한 득표율로 가시화되면서 집중적인 논의와 대안이 모색되다가도, 선거가 끝나면 다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세대와 인터넷이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16대 대선의 경우, 인터넷 세대에 의해 지역 간 양극화현상이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힘을 얻었지만, 선거 이후에도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지역 간 여론양극화 현상은 반복되는 우리 사회의 문제지만 이러한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주로 선거결과를 포함하여 투표행위와 관련된 사안들이었다는 것이다. 가시적인 투표행위 및 결과는 지역 간 차이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고 사람들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투표관련 사안 이외의 모든 정치적 태도 및 행동에서도 지역 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즉, 지역 간 투표행위가 여론지각 일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투표관련 이슈를 제외한 특정 이슈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론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에 따르면 지역 간 여론차이가 실제 여론의 차이라기보다는 투표행위에 근거한 여론지각의 차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 간 여론지각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표현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특정 의견이 특정 사회 내 지배적인 여론으로 구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Noelle-Neuman, 1993; Schuefele & Moy, 2000). 이것은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감정이 개인심리적 차원을 넘어 집단적 형태로 체계화된 집단심리적 차원을 갖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한다(박정순, 1990). 결국 여론지각에 기반한 지역 간 의견차이는 실제 여론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 간 여론양극화 현상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과 세대 간에 존재하는 여론양극화 현상의 실재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일차적 목적이다. 먼저 지역의 이해관계가 없는 전국이슈와 지역의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이슈를 선정하여 각각의 이슈에 대해 지역 간, 세대 간 여론양극화 현상이 실제 존재하는지를 여론, 여론지각, 지각편향의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여론양극화 현상에 대해 지역 간 차이와 세대 간 차이를 교차분석함으로써 젊은 세대에 의해 지역주의가 극복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교차분석 결과, 두 지역의 기성 세대들이 보이는 차이의 간격이 두 지역 젊은 세대들에서 크게 줄어든다면, 이 세대들이 사회의 주역이 될 가까운 미래에 지역주의가 극복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 역시 기성 세대와 유사한 차이의 간격을 유지하거나 상대 지역에 대해 여전히 편향된 인식을 지니고 있다면, 지역 간 여론양극화 현상은 극복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리게 될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1) 여론양극화의 세 차원: 여론, 여론지각, 지각편향

한 사회의 여론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근거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판단이나 정당성 획득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공중에 의한 여론 정치가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신념은 서구의 오랜 전통으로, 여론에 의한 민주정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공중들이 특정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 이슈에 관한 여론이 고정관념이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바뀔 수 있는 가변적 속성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여론양극화 현상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고착화된 신념이나 가치, 혹은 편견에 따라 여론이 지속적으로 양분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 사회에서 지속되고 있는 지역감정은 특정 이슈에 대한 여론을 지역 간 차이로

환원시킴으로써 특정 이슈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방해하고 지역 간 여론양극화 현상을 야기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역에 기반한 여론양극화 현상은 실제 여론이 양분되어 있는가와 상관없이 여론이 양분된 것으로 지각하는 데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론형성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논의들은 실제 여론이 어떠한가보다는 여론이 어떻게 지각되고 형성되는가에 주목해왔다.

노엘노이만(Noelle-Neuman, 1995)에 따르면 여론은 도구적 수단으로서의 여론과 사회통제 수단으로서의 여론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도구적 수단으로서의 여론은 시민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 정보를 획득하고 논의하는 합리적인 과정을 지칭하며, 사회통제 수단으로서의 여론은 효율적으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강제적으로 창출해내는 과정을 지칭한다. 사회통제 수단으로서의 여론은, 역동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여론이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회인지적 접근방식에서 주로 다루어져왔는데, 실제 특정사안에 대한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를 결정짓는 것은 개개인의 의견의 총합으로서의 여론이 아니라 개인이 사회적 의견 분포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 하는 여론지각이다. 여론에 관한 지각은 공적 사안이나 이슈에 대한 개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Joslyn, 1999; Mutz, 1998), 개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해도 되는 것인지 침묵해야 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김유경, 2001; 이준웅, 2001; 한혜경, 2003; Noelle-Neuman, 1993; Willnat, Lee & Detenber, 2002). 나아가 기부행위나 투표와 같은 비공개적 정치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Scheufele & Eveland Jr., 2001). 이처럼 사회적 태도나 행동에 관한 여론지각은 익숙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표현할 것인가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며, 사회행동의 의미를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Nisbett & Kunda, 1985).

따라서 개인이 여론분포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느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한다는 것이며, 정확하지 않은 여론지각이 오히려 실제 여론으로 결정된

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여론지각의 부정확성 혹은 지각편향을 설명하는 대표적 논의가 허위합의와 다원적 무지현상이다.

먼저 허위합의(false-consensus)는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의 의견 세계, 즉 여론의 세계에 투사시켜 지각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 태도, 행위에 관해 허위합의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허위합의는 다수가 자신과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편견은, 자신들의 행위적 선택과 판단을 현재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보편적이고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대안적 반응은 보편적이지 않거나 일탈적이고 부적합한 것으로 보는 경향 때문에 나타난다(Ross, Greene & House, 1977, p. 280).

허위합의를 가져오는 원인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는데, 막스와 밀러는 크게 네 가지로 그 원인을 요약하고 있다(Marks & Miller, 1987). 첫째, 선택적 노출과 인지적 이용가능성(selective exposure and cognitive availability)이다. 유사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택적 노출과 유사한 기억에 대한 용이한 접근은 허위합의 경향을 증가시킨다. 둘째, 현저성과 주목의 초점(salience and focus of attention)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입장에만 주목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에 대한 합의 추정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사회여론에 대해 잘못된 지각을 하게 된다. 셋째, 논리적 정보 처리(logical information processing)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반응이 일치할 거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 과정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넷째, 동기부여(motivation)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유사하다고 인지하는 것은 자기 입장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어 자부심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인지적 균형을 유지하고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긴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 요인들은 모두 함께 혹은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처리 과정을 거쳐 허위합의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러한 허위합의가 오히려 합의의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Dawes, 1989).

그러나 사회적 행동 및 태도에 관한 의견 분포를 얼마나 정확히 지각하는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분산과 평균을 과대평가하고 허위합의 지각을 보이는 등 체계적인 지각편향이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사회적 의견 분포에 대한

지각은 실제와 거의 가까울 정도로 정확했다(Nisbett & Kunda, 1985). 또한 자신의 의견에 따라 의견 분포의 집중경향치가 편향되고 의견 분포가 정상분포라는 편견이 있었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았다. 이것은 사회적 여론분포를 지각할 때 허위합의가 의견 분포를 추측하는 유일한 기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행동이나 태도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나 기억에도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 있지 않은 외부집단의 의견 분포를 추정하는 데는 덜 정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여론분포의 분산을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Quattrone & Jones, 1980).

여론지각의 부정확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현상은 다원적 무지이다. 다원적 무지(pluralistic ignorance)는 어떤 문제에 대해 다수의 의견을 소수의 의견일 거라고 잘못 인지하거나 또는 소수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일 거라고 잘못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Katz & Allport, 1931). 다원적 무지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미 소수의견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통념이 사회적 차원에서는 다수의견으로 지각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견해가 분명하게 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수가 자신의 태도와 일치할 것이라고 상상하며,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내면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태도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한 인지된 기대를 구성한다(Fields & Schuman, 1976). 이런 식으로 공중의 믿음과 태도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사회적·집단적 차원에서 다원적 무지가 발생하는 이유는 개인적 차원에서 두 가지 경향, 즉 거울반사인식과 문화적 편파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거울반사인식(looking-glass perception)은 실제 여론분포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거울반사인식은 이전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슈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거울반사인식이 다른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상을 인지하는 기본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베트남 전쟁이나 낙태합법화 반대 등과 같이 논란이 되는 쟁점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공중의 의견이 자신들

과 같을 거라고 지각하였다(Field & Schuman, 1976).

이와 달리 문화적 편파인식(cultural bias)은 문화적 규범이나 가치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말한다. 백인들은 인종문제에 관해 다른 백인들이 자신보다 인종차별을 더 지지할 것이라고 지각하였다. 즉, 자신보다 더 보수적일 것이라고 잘못 추정하였는데, 이는 인종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른 사람의 견해에 귀인시킴으로써 나타나는 경향이다(O'Gorman & Garry, 2001). 이러한 현상은 특정 이슈와 관련된 분야의 지배적인 규범이나 가치가 진보적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보수적이라고 지각하는 보수편향(conservative bias)이 나타나고, 규범이나 가치가 보수적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진보편향(liberal bias)을 보이게 된다(오미영, 2005; Glynn, 1989). 다시 말해 자신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 사회의 지배적 규범이나 가치에 더 가깝다고 인지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다원적 무지 현상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우선 이슈에 따라서 사람들의 여론지각이 다를 수 있다. 사회문화적 통념과 관련된 가치지향적 이슈의 경우 보수적 편향이나 진보적 편향이 나타나며, 단순한 시사 이슈에 대해서는 거울반사인식이 나타난다(Field & Schuman, 1976). 둘째, 특정 이슈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다원적 무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인종문제나 시민자유와 같은 이슈에 대해 보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거울반사인식이 강한 반면, 진보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보수편향을 가지고 있다(Field & Schuman, 1976). 노무현 대통령 탄핵관련 이슈에 대한 여론지각에서도 전체 응답자들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보수적 편향을 나타냈으며, 특히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수적 편향이 두드러졌다. 반면에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탄핵에 찬성할거라고 봄으로써 거울반사인식을 보였다(오미영, 2005). 셋째, 여론지각의 준거집단에 따라서도 다원적 무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박정순·원우현·김정탁(1987)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남북문제에 관해

다른 학생들이 자신과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는 거울반사인식을 보인 반면, 일반 국민들은 자신들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라고 지각하는 보수편향 인식을 보였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과 가까운 이웃들은 자신보다 더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였지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진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였다(Glynn, 1989).

이러한 다원적 무지는 자신의 분명한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도 투사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이치에 맞기 때문에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자신과 같은 의견을 가질 거라고 지각한다(Fields & Schuman, 1976). 하지만 인종문제같이 민감한 이슈에 대해 인터뷰하는 상황과 같이 실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기 어려운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의견보다 진보적인 견해를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의 견해는 자신보다 보수적일거라고 응답하는 식으로 사회적 편견 등을 감수하지 않고 자신의 보수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경향을 보인다.

이상과 같이 다원적 무지는 기존의 규범이나 통념, 가치 또는 사회적 편견에 입각하여 다른 사람들의 태도나 의견을 잘못 인식하는 경향과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역감정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박정순, 1989). 다원적 무지는 기존의 편견이나 관념을 계속 유지 존속시킴으로써 사회변화에 반대하는 힘으로 작용하며, 한편으로는 이것들을 공유하는 사회집단 내부의 응집력으로서 집단의 존속과 유지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여론양극화 현상의 주요한 축인 지역 간, 세대 간 여론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지역 및 세대 간 실제 여론의 차이뿐만 아니라 지각된 여론이 무엇인가, 여론지각에서 어떠한 편향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두 지역이 정치적 이슈에서 실제 여론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 차이는 세대에 따라 다른 경향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여론지각과 지각편향에서는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각편향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실제 여론의 차이를 반영한다면, 두 지역 간 여론양극화는 실제 여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만약 여론지각에서의 편향 차이가 실제 여론의 차이보다 크게 나타난다면,

두 지역의 여론양극화 현상은 심리적 여론지각의 차이에 기인한 일종의 허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여론지각과 지각편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개인 의견은 사람들이 여론지각에서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앞서서도 논의했듯이 사람들은 여론을 지각할 때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투사하여 지각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적 의견과 다수 의견에 관한 지각의 연관성은 몇 가지 요인에 따라 그 변량이 달라진다. 조슬린(Joslyn, 1999)은 그 대표적인 요인으로 지각자의 정보처리 능력과 의견대상의 특성을 들고 있다. 지각자의 정보처리 능력은 교육 및 뉴스 습득량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얻은 대안적인 정보들로부터 여론을 추론함으로써 개인적 의견의 영향을 덜 받는다. 의견대상의 경우는 그 대상이 지각자들에게 덜 친숙하거나 혹은 외부로부터 지각되는 판단근거가 부족할 때 여론지각에서 개인적 의견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다. 이와 유사하게 크레인(Crane, 1982)도 객관적인 여론 분포 정보에 대한 노출 여부를 주요 요인으로 제시한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점은 여론지각의 편향 정도는 개인적 의견과 다른 대안적인 정보량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는 점이다. 개인이 습득하는 대안적인 정보량은 성,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정치성향, 뉴스매체 이용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그리고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의견과 다른 대안적인 정보를 많이 습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사실 뉴스매체 이용량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텔레비전과 신문과 같은 전통적인 뉴스매체들은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여론분위기를 지각하고 자신과 다른 대안적인 정보 혹은 시각을 접하는 주요 통로이다. 대중매체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느냐에 관해서는 실망의 목소리도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매체는 사람

들을 다양한 관점에 노출시키는 데 대인 커뮤니케이션보다 장점을 가지고 있다(Mutz & Martin, 2001).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지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 의견 등에서 유사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이를 통한 여론지각은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다수 의견으로 지각하는 인식적 편향을 강화시킨다(Marks & Miller, 1987). 반면 이질적인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매체의 보도는 대조적인 의견을 함께 제공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무엇보다도 대중매체는 편재성과 내용의 유사성으로 인해 사람들의 선택적 노출을 어렵게 만든다. 대중매체 보도를 통해 대조적인 의견을 접할 때, 사람들은 여론을 자신의 의견과 대조적인 방향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건써와 크리스틴(Gunther & Christen, 2002)은 개인적 의견을 스스로 여론을 지각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방식인 허위합의 효과는 대중매체의 분위기를 지각할 때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사람들은 다수의 여론이 대중매체의 보도 방향대로 움직인다고 주장한다.

한편 수용자가 뉴스 선택의 통제권을 발휘할 수 있는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가 여론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는 않다. 한혜경(2003)은 디지털조선과 오마이뉴스 이용자의 여론지각 비교분석을 통해 인터넷 매체 자체가 여론지각의 허위합의 경향을 강화시키기보다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즉 대안적인 정보를 접할 가능성에 따라 그 경향성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이 연구에서는 지역감정 역시 서로에 대한 여론지각과 편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수 있다고 가정한다. 지역감정은 다른 지역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지역감정은 상대 지역에 대한 정보와 접촉경험이 많을수록 약화된다. 이는 앞서 조슬린(Joslyn, 1999)이 제시한 의견대상의 친숙성에 따라 여론지각의 편향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논의를 토대로 한다. 따라서 같은 지역주민이라도 지역감정의 정도에 따라 여론지각의 편향정도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보수적 성향과 진보적 성향 등으로 대표되는 정치성향은 지각편향의 정보

뿐만 아니라 편향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인으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정치성향에 따라 특정 이슈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데, 앞에서도 논의했듯이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을 자신의 의견에 비추어 지각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진보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보수편향을 지닌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한다면, 부산과 광주로 대표되는 두 지역은 실제 여론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역 여론에 대한 지각과 상대 지역 여론에 대한 지각에서 편향이 나타날 가능성을 충분히 지닌다. 또한 그 편향의 정도와 방향에서도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먼저 부산은 광주에 비해 훨씬 많은 인구가 거주하며 따라서 인구사회적인 차원에서 이질성이 더 높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것은 부산시민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접촉할 기회, 즉 대안적인 정보나 시각을 접할 기회가 더 많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산시민들은 광주시민들보다 자기 지역에 대한 여론지각이 자신의 의견과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상대 지역의 여론에 대한 지각에서는 부산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편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의 주요한 특성은 두 지역의 정치성향이다. 일반적으로 광주지역은 부산지역보다 정치적 이슈에 관해 더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과 무관한 다른 사람들이 보수적인 의견을 지닐 거라고 지각한다는 기존 논의를 토대로 한다면, 광주시민들이 상대 지역 여론지각에서 보수편향을 더 강하게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논의는 세대에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 세대구분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정치에 대한 신념체계가 형성되고 이후 정치적 태도 및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사회화 시기인 19세~23세에 정치경험을 공유한 연령층을 기준으로(김영경, 1999) 할 때 우리 사회 세대는 디지털세대, 민주화세대, 산업화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홍덕률, 2003). 연령이 어릴수록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디지털세대가 민주화세대나 산업화세대보다 보수적 지각편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디지털세대는 탈정치와 탈이념의 첫 세대로서 문화적 소비욕구가 높고 청년실업 등 경제적 문제를 더

중시하면서 정치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민주화세대에 비해 실제로 더 보수적일 수 있으며, 타 지역 여론이 자신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진보편향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민주화세대는 정치적 격동기인 1980년대에 정치사회화되고 다양한 정치경험을 통해 상당히 동질적이면서 공동체적인 연대감을 갖고 있으며, 정치사회적으로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열망이 높은 이념지향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세대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소위 386세대로 일컬어지는 민주화세대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왔다. 때문에 민주화세대는 자신들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보다 진보적이라는 인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비해 1960~70년대 한국사회 산업화의 주역이면서 반공이데올로기와 유신독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국가주의와 권위주의, 집단주의가 내면화된 보수주의의 토대를 이루는 산업화세대는 보수적인 정치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산업화세대는 지역감정에 기반한 정치양태를 가장 많이 경험한 세대이자 내면화 정도가 심한 세대로서 지역 간 여론에 대한 지각편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개인의 의견과 여론지각, 지각편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할 것이다. 또한 여론양극화 현상의 주요 요인인 지역과 세대가 다른 여러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개인의견, 여론지각, 그리고 지각편향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들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문제

이상의 논의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지역 간에 전국이슈 및 지역이슈에 대한 여론양극화 현상이 존재하는가?

1-1 전국이슈 및 지역이슈에 대해 지역 간 여론의 차이가 있는가?

1-2 전국이슈 및 지역이슈에 대해 지역 간 여론지각의 차이가 있는가?

1-3 전국이슈 및 지역이슈에 대해 지역별 지각편향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세대 간에 전국이슈 및 지역이슈에 대한 여론양극화 현상이 존재하는가?

2-1 전국이슈 및 지역이슈에 대해 세대 간 여론의 차이가 있는가?

2-2 전국이슈 및 지역이슈에 대해 세대 간 여론지각의 차이가 있는가?

2-3 전국이슈 및 지역이슈에 대해 세대별 지각편향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지역 및 세대 간에 전국이슈 및 지역이슈에 대한 여론, 여론지각, 지각편향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지역과 세대는 여론, 여론지각, 지각편향을 예측하는 데 유의미한 변인들인가?

4. 연구방법

1) 조사방법

특정 이슈에 대한 여론양극화 현상이 지역과 세대 간에 나타나는가를 살펴 보기 위해 지역적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는 부산과 광주지역을 선정하였다. 또한 지역 간 여론의 차이가 이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불법도청 수사와 관련한 이슈 중 전국적인 이슈와 지역적인 이슈를 선정하였다. 불법도청 사건은, 김영삼정부 시절 안기부가 삼성에 대해 불법도청을 했고 이 불법도청 자료가 2005년 7월 MBC를 통해 보도됨으로써 논란이 된 사건이다. 불법도청 사건의 두 가지 핵심적인 이슈는, 안기부가 불법도청한 내용 중 공적 사안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는 문제와, 이미 만료된 김영삼정

부 시절의 국정원 도청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문제로 나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이슈라고 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경우 김영삼 정부의 요직에 있는 인물들이 불가피하게 수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영남지역의 이해관계가 높은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슈는 동일한 이슈에서 파생되었지만 하나는 지역적 이해관계가 없는 이슈이며, 다른 하나는 지역적 이해관계가 걸린 민감한 이슈로, 이슈에 따른 지역 간 여론양극화 현상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설문조사는 2005년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디지털 랩에 의뢰하여 전화설문 조사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조사대상

이 연구는 지역 간 여론 및 여론지각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부산과 광주 지역을 선정했다. 부산과 광주는 대인커뮤니케이션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특정 입장에 편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들이다. 각각 지역에서 지역시민들 간에 이루어지는 대인 커뮤니케이션 정보가 다를 수 있고 두 지역에서 선호되는 언론이나 두 지역의 지역 매체들의 보도 내용 역시 상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여론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역들이라 할 수 있다.

전체 조사대상자는 부산지역 302명, 광주지역 303명이었으며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남성 298명(49.3%: 부산 150명, 광주 148명), 여성 307명(50.7%: 부산 152명, 광주 155명)이었고, 연령별로는 20대 146명(24.1%: 부산 66명, 광주 80명), 30대 142명(23.5%: 부산 64명, 광주 78명), 40대 137명(22.6%: 부산 72명, 광주 65명), 50대 이상 180명(29.8%: 부산 100명, 광주 80명)이었다.

여론양극화 현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세대는, 단순한 연령 차이가 아닌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상대적으로 유사한 의식, 태도, 행위양식을 가지며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동류의식을 갖는 사람들의 집합”(박재홍, 2003)

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연구는 정치사회적 경험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세대를 디지털세대, 민주화세대, 산업화세대로 구분하였다(홍덕률, 2003). 디지털세대는 20세~36세로 디지털 기기사용이 일상화된 인터넷 세대이고, 민주화세대는 37세~46세로 민주주의를 중요한 삶의 가치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1980년대 고도성장기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경제적 보수성이 중첩된 세대이며, 산업화세대는 47세 이상으로 산업화의 주역이면서 정치적으로는 가장 보수적인 세대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 세대는 디지털세대 247명(40.8%: 부산 109명, 광주 138명), 민주화세대 142명(23.5%: 부산 79명, 광주 63명), 산업화세대 216명(35.7%: 부산 114명, 광주 102명)이었다.

3) 주요 변인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여론: 이슈에 대한 의견은, 전국이슈인 불법도청문제와 지역이슈인 공소시효 연장에 대해 찬성하는 정도를 각각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여론지각: 여론지각은 두 차원에서 측정되었는데, 자기 지역 여론지각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타 지역 여론지각은 상대 지역 사람들이 각각 불법도청 내용 중 공적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는 문제와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한다고 생각하는지를 각각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지각편향: 지각편향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지각이 실제 여론과 차이가 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전국이슈와 지역이슈 각각에 대한 응답자의 실제의견과 응답자가 지각하는 의견의 차이로 측정하였다. 지각편향은, ① 응답자의 실제의견과 동일 지역민의 의견에 대한 지각의 차이(자신 의견-자기 지역 여론지각), ② 실제의견과 다른 지역민의 의견에 대한 지각의 차이(자신 의견-타 지역 여론지각), ③ 동일 지역민의 의견에 대한 지각과 다른 지역민의 의견에 대한 지각의 차이(자기 지역 여론지각-타 지역 여론지각)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측정하였다.

여기서 의견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측정하지 않고 단순히 실제의견에서 자기 지역 여론지가 혹은 타 지역 여론지를 빼는 방식으로 측정한 것은, 지각편향의 크기뿐만 아니라 지각편향의 방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즉, 지각편향이 0인 경우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여론에 대한 지각이 각 이슈에 대해 찬성이든 반대이든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각편향이 양수인 경우 각 이슈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보다 상대적으로 반대에 가깝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고, 음수인 경우 각 이슈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보다 상대적으로 찬성에 가깝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정치태도 변인: 먼저 정치관심은 ‘평소 정치나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진 정도’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정치성향은 ‘자신을 진보적으로 또는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정도’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5) 뉴스미디어 이용: TV뉴스 및 시사프로그램 이용, 종이신문(스포츠신문 제외) 이용, 인터넷 뉴스사이트(포털포함) 이용은 하루 평균 몇 분을 이용하였는가로 측정하였다.

(6) 지역감정 변인: 지역 간 의견 차이를 살펴보는 주요 변수인 지역감정 변인은 김혜숙(1988)의 연구를 참조하여 세 가지 차원에서 측정하였다. 타 지역민에 대한 인식 정도는 타 지역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타 지역민 경험 정도는 타 지역 사람들을 직접 만나거나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경험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타 지역민 포용성은 ‘미혼일 경우 결혼할 수 있다’, ‘우리 가족의 일원과 결혼해서 인척이 되어도 무방하다’, ‘내가 속한 친목모임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같은 직장 동료로 고용할 수 있다’, ‘기회가 닿으면 친구로 삼을 수 있다’의 5개 항목을 예, 아니오로 측정한 후 예라고 응답한 항목의 수를 포용성 지수로 삼았다.

5. 분석 결과

1) 지역 및 세대 간 특성 비교

지역 및 세대 간에 정치태도 변인, 뉴스미디어 이용 변인, 지역감정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각각 t-test와 One way-ANOVA를 통해 검증해보았다. 먼저 <표 1>에서 보듯이 부산과 광주 두 지역 간에는 정치태도 변인들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부산이 신문 열독량($t=2.828$, $p<.01$)이 더 많았고 광주가 텔레비전 시사보도 프로그램 시청량이 미약하지만 더 많았다. 지역감정 변인에서 광주가 타 지역민을 포용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059$, $p<.05$).

디지털세대, 민주화세대, 산업화세대 간에는 정치태도 변인 모두 유의미한

<표 1> 지역 및 세대 간 정치태도, 커뮤니케이션, 지역감정 변인 비교(평균)

		지역			세대			F값
		부산 (N=302)	광주 (N=303)	t값	디지털세대 (N=247)	민주화세대 (N=142)	산업화세대 (N=216)	
정치 태도 변인	정치관심	3.30 (.97)	3.31 (.96)	-.114	3.09 (.90)	3.39 (.97)	3.50 (.98)	11.584***
	정치성향	2.83 (.78)	2.95 (0.79)	-1.872+	2.98 (.74)	2.92 (.77)	2.77 (.84)	4.118*
뉴스 미디어 이용	신문 열독량	25.37 (28.49)	19.52 (21.98)	2.828**	16.77 (21.68)	29.54 (25.13)	24.26 (28.52)	7.600***
	시사보도 시청량	42.20 (34.38)	47.18 (31.13)	-1.866+	39.76 (27.90)	43.10 (30.75)	51.39 (38.05)	12.536**
	인터넷뉴스 이용량	19.05 (32.12)	19.78 (31.36)	-.282	29.59 (35.53)	22.45 (31.40)	5.30 (19.86)	38.190***
지역 감정 변인	타 지역민 인식	2.75 (1.06)	2.69 (1.02)	.692	2.68 (.97)	2.75 (1.07)	2.73 (1.09)	.219
	타 지역민 경험	3.00 (1.19)	2.95 (1.21)	.506	2.90 (1.17)	3.17 (1.12)	2.94 (1.28)	2.471+
	타 지역민 포용	4.52 (1.13)	4.68 (.85)	-2.059*	4.74 (.72)	4.60 (.99)	4.43 (1.26)	5.426**

+ $p <.1$, * $p <.05$, ** $p <.01$, *** $p <.001$, 괄호안은 표준편차.

차이가 있었다. 산업화세대가 정치관심이 가장 많았고($F=11.584$, $p<.001$) 디지털세대가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F=4.118$, $p<.05$). 신문 열독량은 민주화세대가 가장 많고($F=7.600$, $p<.001$), 시사보도 시청량은 산업화세대가 가장 많으며($F=12.536$, $p<.01$), 인터넷뉴스 이용량은 디지털세대가 가장 많아 세대별로 주로 접촉하는 매체가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 지역민 포용정도는 디지털세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426$, $p<.01$).

2) 지역 간 여론, 여론지각, 지각편향의 차이

지역 간 여론양극화 현상을 실제 여론, 여론지각, 지각편향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불법도청 내용 공개에 대한 두 지역 간 여론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공소시효 연장에 대해서는 광주시민들이 부산시민들보다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4.216$, $p<.001$).

여론지각 차원을 살펴보면, 두 이슈 모두에서 광주시민들이 지각하는 자기 지역 여론이 부산시민들이 지각하는 자기 지역 여론보다 찬성 정도가 높았으며(전국이슈: $t=-3.614$, $p<.001$, 지역이슈: $t=-7.785$, $p<.001$), 타 지역 여론 지각에서는 부산시민들이 생각하는 광주시민들의 공적 사안 공개에 대한 찬성도가 광주시민들이 생각하는 부산시민들의 찬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전국이슈: $t=5.243$, $p<.001$, 지역이슈: $t=6.667$, $p<.001$). 그런데 이러한 여론지각의 차이는 지역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소시효 연장 이슈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각편향의 경우, 두 이슈 모두에서 자기 의견과 자기 지역여론 간의 지각편향은 부산시민들이 더 컸으며(전국이슈: $t=3.476$, $p<.01$, 지역이슈: $t=4.344$, $p<.001$), 자기 의견과 타 지역여론 간 지각편향은 광주시민들이(전국이슈: $t=-5.318$, $p<.001$, 지역이슈: $t=-9.575$, $p<.001$), 자기 지역과 타 지역 간의 여론지각 차이를 의미하는 지역 간 지각편향 역시 광주시민들이 월등히 높았다(전국이슈: $t=-9.727$, $p<.001$, 지역이슈: $t=-14.478$, $p<.001$).

<표 2> 지역 간 여론, 여론지각, 지각편향의 차이(평균)

			부산 (N=302)	광주 (N=303)	t값
전국 이슈	여론	의견	3.63(1.13)	3.66(1.12)	-0.368
	여론지각	자기 지역	3.26(1.15)	3.60(1.11)	-3.614***
		타 지역	3.62(1.13)	3.11(1.18)	5.243***
	지각편향	자기 의견-자기 지역	.38(1.07)	.08(1.04)	3.476**
		자기 의견-타 지역	.02(1.29)	.60(1.30)	-5.318***
자기 지역-타 지역		-.35(.99)	.54(1.17)	-9.727***	
지역 이슈	여론	의견	3.44(1.17)	3.84(1.17)	-4.216***
	여론지각	자기 지역	3.10(1.18)	3.84(1.12)	-7.785***
		타 지역	3.61(1.14)	2.94(1.24)	6.667***
	지각편향	자기 의견-자기 지역	.38(1.17)	.00(.91)	4.344***
		자기 의견-타 지역	-.12(1.26)	.97(1.41)	-9.575***
자기 지역-타 지역		-.51(1.08)	.98(1.34)	-14.478***	

+ p < .1, * p < .05, ** p < .01, *** p < .001, 괄호안은 표준편차

지각편향 역시 지역이슈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여론지각의 편향성 즉 여론에 대한 지각이 정확한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에서 보듯이 전국 이슈와 지역이슈에 대해 일관적인 지각편향 패턴이 나타났다. 즉, 부산에서 자신의 의견과 자기 지역의견 간 지각편향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전국 이슈: $t=6.037$, $p<.001$, 지역이슈: $t=5.486$, $p<.001$), 자기 의견과 타 지역의견 간 지각편향은 광주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전국이슈: $t=7.703$, $p<.001$, 지역이슈: $t=11.288$, $p<.001$). 자기 지역 여론과 타 지역 여론 간의 지각편향은 부산과 광주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부산시민들은 전국이슈와 지역이슈 모두 타 지역, 즉 광주지역 여론이 찬성에 더 가까울 거라고 지각한 반면(전국이슈: $t=-6.001$, $p<.001$, 지역이슈: $t=-7.974$, $p<.001$), 광주시민은 자기 지역, 즉 광주지역 여론이 더 찬성에 가까울 것이라고 지각하였다(전국 이슈: $t=7.662$, $p<.001$, 지역이슈: $t=12.148$, $p<.001$). 결국 두 지역민 모두 광주지역이 불법도청 내용 공개와 공소시효 연장에 대해 더 찬성할 것이라고

<표 3> 지역별 지각편향(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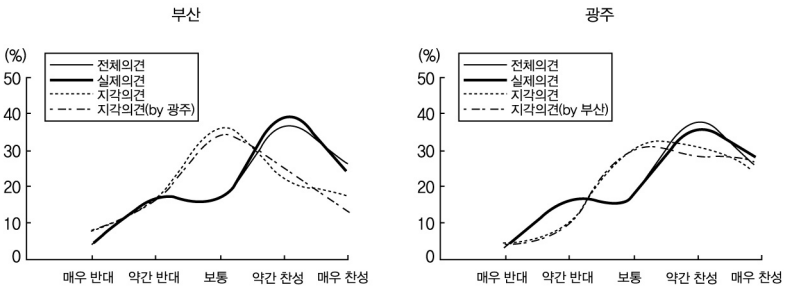
구분	전국이슈								
	자신	자기 지역	t값	자신	타 지역	t값	자기 지역	타 지역	t값
부산	3.64 (1.12)	3.26 (1.15)	6.037***	3.64 (1.11)	3.62 (1.13)	0.276	3.27 (1.15)	3.62 (1.13)	-6.001***
광주	3.67 (1.15)	3.60 (1.11)	1.281	3.71 (1.13)	3.11 (1.18)	7.703***	3.65 (1.11)	3.11 (1.18)	7.662***
구분	지역이슈								
	자신	자기 지역	t값	자신	타 지역	t값	자기 지역	타 지역	t값
부산	3.48 (1.16)	3.10 (1.18)	5.486***	3.49 (1.15)	3.61 (1.14)	-1.600	3.10 (1.18)	3.61 (1.14)	-7.974***
광주	3.85 (1.16)	3.85 (1.12)	.000	3.91 (1.14)	2.94 (1.24)	11.288***	3.92 (1.10)	2.94 (1.24)	12.148***

+ p < .1, * p < .05, ** p < .01, *** p < .001, 괄호안은 표준편차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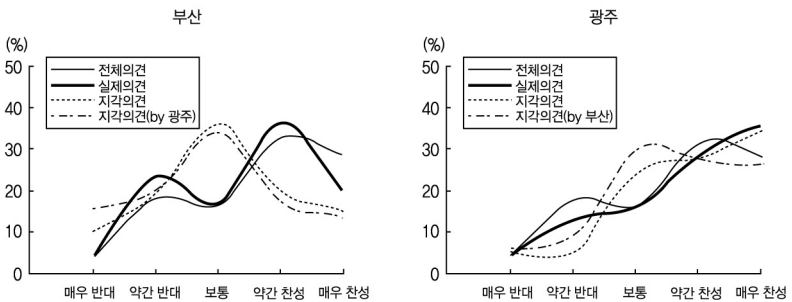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들은 이슈와 관계없이 광주시민이 부산시민보다 자기 지역여론에 대한 지각편향이 적은 반면 타 지역 여론지각에서는 지각편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부산의 경우 자기 지역여론에 대한 지각편향이 큰 반면에 타 지역여론 지각에서는 지각편향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역 간 지각편향에서는 두 지역 모두 유의미한 지각편향을 보였는데 광주시민들은 부산시민이 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보수편향을 보인 반면, 부산시민들은 광주시민이 더 진보적이라는 진보편향을 보여 대조적이다.

지역 간 의견, 여론지각과 지각편향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실제의견 분포와 여론지각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불법도청 내용 공개에 대한 부산과 광주지역의 실제의견을 비교하면 의견 분포는 거의 같았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실제의견과 지각의견 분포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지각의견의 분포는 정상분포 형태를 띠는 것이다. 광주의 경우 실제의견은 약한 쌍봉분포(bimodal distribution)를 보인 반면 지각의견은 약한 부정적 편포, 즉 S자형 분포를 보였다.



<그림 1> 전국이슈에 대한 실제의견과 여론지각 분포

공소시효 연장에 대한 의견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2>에서 보듯이 부산과 광주의 실제의견 분포는 차이가 있었다. 부산은 쌍봉분포를 보였고 실제의견과 지각의견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반면, 광주는 사선형 분포를 보였고 실제의견과 지각의견 간 약간의 분포 차이를 보였다. 부산지역은 전국이슈와 마찬가지로 부산시민들이 지각하는 자기 지역 여론과 광주시민들이 지각하는 부산지역 여론이 정상분포로 거의 일치하였다. 광주시민들이 지각하는 자기 지역여론과 부산시민들이 지각하는 광주지역 여론은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나 ‘매우 찬성’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그림 2> 지역이슈에 대한 실제의견과 여론지각 분포

<표 4> 세대 간 여론, 여론지각, 지역편향의 차이(평균)

			디지털세대	민주화세대	산업화세대	F값
전국 이슈	여론	의견	3.74(1.07)	3.62(1.20)	3.54(1.19)	1.866
		의견 강도	2.12(.66)	2.18(.65)	2.10(.70)	.731
	여론 지각	자기 지역	3.48(1.11)	3.44(1.22)	3.36(1.13)	.621
		타 지역	3.43(1.09)	3.40(1.29)	3.27(1.22)	1.124
	지각 편향	자기 의견-자기 지역	.28(1.04)	.19(1.13)	.19(1.05)	.501
		자기 의견-타 지역	.32(1.29)	.28(1.33)	.31(1.38)	.038
자기 지역-타 지역		.06(1.03)	.07(1.31)	.14(1.23)	.311	
지역 이슈	여론	의견	3.72(1.10)	3.74(1.18)	3.49(1.27)	2.737+
		의견 강도	2.12(.68)	2.20(.69)	2.17(.69)	.791
	여론 지각	자기 지역	3.59(1.14)	3.48(1.29)	3.33(1.22)	2.768+
		타 지역	3.37(1.16)	3.38(1.29)	3.12(1.27)	2.623+
	지각 편향	자기 의견-자기 지역	.12(1.02)	.29(1.06)	.19(1.11)	1.107
		자기 의견-타 지역	.36(1.32)	.42(1.43)	.46(1.59)	.272
자기 지역-타 지역		.25(1.25)	.13(1.53)	.25(1.54)	.357	

+ p < .1, * p < .05, ** p < .01, *** p < .001, 괄호안은 표준편차

3) 세대 간 여론, 여론지각, 지각편향의 차이

세대 간 여론양극화 현상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세대 간 여론, 여론지각, 지각편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표 4>에서 보듯이 불법도청 공적사안 공개에 관한 여론, 여론지각, 지각편향 모두에서 세대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이슈에서는 의견, 자기 지역 및 타 지역 여론지각에서 미약하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여론, 여론지각, 지각편향에서 세대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여론지각의 편향성, 즉 여론에 대한 지각이 정확한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표 5> 참조). 먼저 자기 의견과 자기 지역 여론 간 지각편향은 전국이슈의 경우 디지털세대(t=4.184, p<.001)와

<표 5> 세대별 지각편향(평균)

	전국이슈								
	자신	자기 지역	t값	자신	타 지역	t값	자기 지역	타 지역	t값
디지털 세대	3.76 (1.05)	3.48 (1.11)	4.184***	3.76 (1.05)	3.43 (1.09)	3.853***	3.49 (1.10)	3.43 (1.09)	0.820
민주화 세대	3.63 (1.20)	3.44 (1.22)	1.946+	3.68 (1.18)	3.40 (1.29)	2.468*	3.46 (1.24)	3.40 (1.29)	0.593
산업화 세대	3.55 (1.18)	3.36 (1.13)	2.629**	3.57 (1.17)	3.27 (1.22)	3.089**	3.41 (1.13)	3.27 (1.22)	1.595
	지역이슈								
	자신	자기 지역	t값	자신	타 지역	t값	자기 지역	타 지역	t값
디지털 세대	3.72 (1.09)	3.60 (1.14)	1.885+	3.73 (1.09)	3.37 (1.16)	4.171***	3.61 (1.15)	3.37 (1.16)	3.035**
민주화 세대	3.77 (1.18)	3.48 (1.29)	3.229**	3.80 (1.16)	3.38 (1.29)	3.419**	3.51 (1.29)	3.38 (1.29)	0.967
산업화 세대	3.52 (1.25)	3.33 (1.22)	2.502*	3.58 (1.25)	3.12 (1.27)	4.008***	3.37 (1.22)	3.12 (1.27)	2.252*

+ p < .1, * p < .05, ** p < .01, *** p < .001, 괄호안은 표준편차

산업화세대($t=2.629$, $p<.01$)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지역이슈에서는 민주화세대($t=3.229$, $p<.01$)와 산업화세대($t=2.502$, $p<.05$)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기 의견과 타 지역 여론 간 지각편향은 전국이슈(디지털세대: $t=3.853$, $p<.001$, 민주화세대: $t=2.468$, $p<.05$, 산업화세대: $t=3.089$, $p<.001$)와 지역이슈(디지털세대: $t=4.171$, $p<.001$, 민주화세대: $t=3.419$, $p<.01$, 산업화세대: $t=4.008$, $p<.001$)에서 세대 모두 유의미한 편향을 보였는데 모두 타 지역민들이 자신보다 불법도청 내용 공개와 공소시효 연장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보수편향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자기 지역과 타 지역 여론 간 지각편향은 전국이슈의 경우 어떤 세대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지역이슈에서는 디지털세대($t=3.035$, $p<.01$)와 산업화세대($t=2.252$, $p<.05$)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자기 지역여론이 타 지역 여론보다 공소시효 연장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전반적으로 모든 세대가 전국이슈와 지역이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타 지역의견보다 찬성에 가깝다고 인식하고, 전국이슈에 대해 자기 지역과 타 지역의견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지각하였지만, 전국이슈와 지역이슈에 대한 자신과 자기 지역 여론 간의 지각편향은 세대마다 차이가 있었고, 지역이슈에 대한 자기 지역과 타 지역 여론 간의 지각편향 역시 세대마다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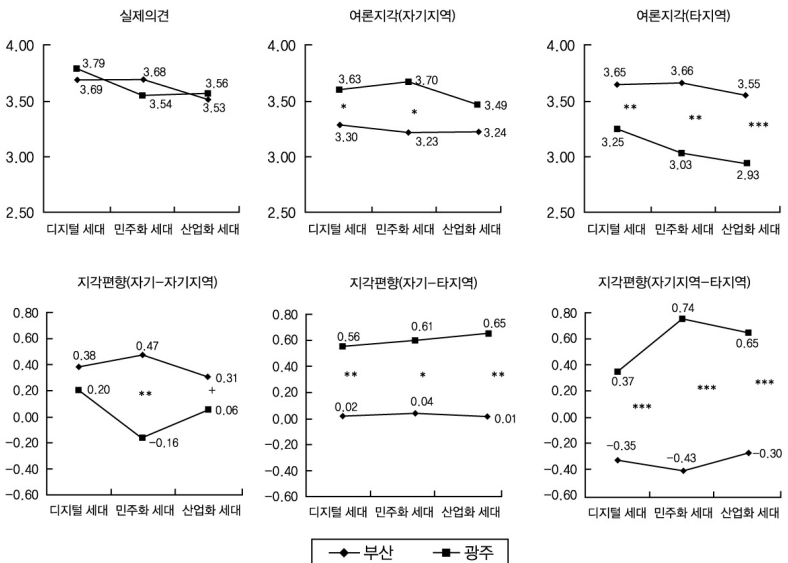
지역에서처럼 세대 간에서도 여론의 세 가지 차원이 실제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제 의견 분포와 여론지각 분포를 살펴보았다(<부록> 참조). 먼저 전국이슈의 경우 부산지역 의견 분포에서는 디지털세대와 산업화세대가 유사한 분포형태를 보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실제의견은 두 세대 간 차이가 있었지만 의견 분포 형태는 S자형으로 유사했고, 지각의견과 타 지역민에 의한 지각의견 분포는 정상 분포형태를 띠고 있다. 광주지역 의견 분포에서도 역시 디지털세대와 산업화세대가 유사한 분포형태를 보였는데, 두 세대에서 실제의견과 지각여론 분포 간에 차이가 있는 반면, 민주화세대는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어 실제의견과 의견지각이 나머지 두 세대보다 일치함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전국이슈에 대한 세대 간 의견 분포에서 실제의견은 S자형 분포를 보였으나, 지각의견 분포는 부산은 정상 분포형태를, 광주는 약한 S자형 형태를 보였다.

다음으로 지역이슈의 경우 부산지역 의견 분포에서 전반적으로 실제의견은 쌍봉형태를 보였으나 그 형태는 산업화세대에서 가장 뚜렷하였고, 자기 지역 지각의견과 타 지역민에 의한 지각의견 분포는 디지털세대와 민주화세대가 정상 분포형태로 유사하였다. 그러나 산업화세대의 경우 자기 지역 지각의견과 타 지역민이 지각하는 의견 분포가 상이하게 나타나 부산과 광주지역 산업화세대가 부산지역 여론에 대해 지각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주지역의 경우 디지털세대와 민주화세대는 실제의견과 지각의견 분포가 S자형으로 유사하였으나 산업화세대는 실제 여론분포는 S자형인 반면, 자기 지역 의견 분포와 타 지역민에 의한 지각의견 분포는 약한 정상 분포를 보였다.

4) 지역 및 세대 간 여론, 여론지각, 지각편향의 차이

지역과 세대를 교차하여 비교했을 때, 여론양극화 현상의 간격이 어느 정도 좁아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전국이슈의 경우 <그림 3>에서 보듯이 불법 도청 내용공개의 실제 여론에서는 세대별로 지역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지역과 세대 모두 찬성경향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디지털 세대의 찬성 정도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자기 지역 여론지각에서는 디지털세대와 민주화세대에서 지역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부산지역 민주화세대는 자기 지역 여론의 찬성 정도를 가장 낮게 지각한 반면, 광주지역 민주화세대는 가장 높게 지각함으로써, 이 세대에서 여론지각의 차이가 가장 컸다. 반면 산업화세대는 그 반대의 경향을 보임으로써 자기 지역에 대한 여론지각에서는 가장 적은 차이



+ p<.1,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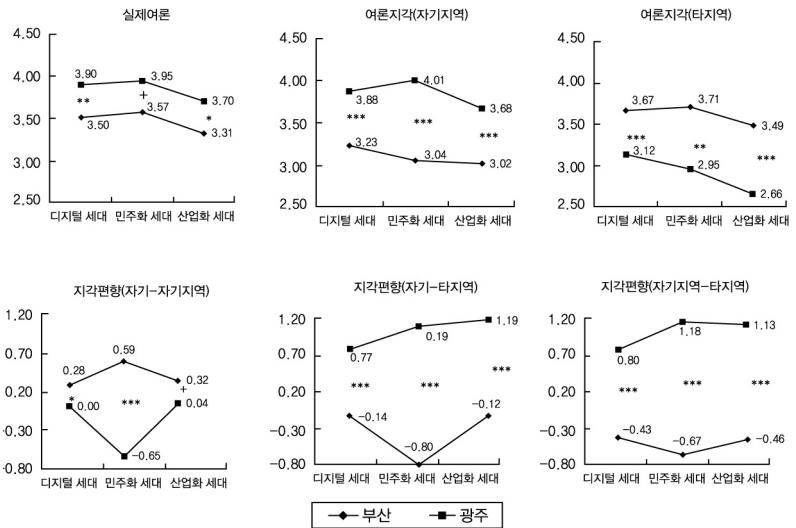
<그림 3> 전국이슈에 대한 세대별 지역 간 여론, 여론지각, 지각편향의 차이(평균)

를 보였다. 타 지역 여론지각에서는, 세대 모두 지역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나, 디지털세대로 올수록 그 차이는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편향의 결과에 그대로 반영된다. 먼저 자기와 자기 지역 여론지각 간의 편향을 살펴보면, 민주화세대에서 지역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부산지역 민주화세대는 자신이 부산시민보다 진보적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광주지역 민주화세대는 광주시민이 자신보다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자기와 타 지역 여론 간 지각편향에서 모든 세대가 지역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그 차이는 산업화세대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마지막으로 자기 지역과 타 지역 여론 간의 지각편향에서도 모든 세대가 지역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민주화세대가 지역 간 지각편향이 가장 심했고, 디지털세대가 가장 적었다. 즉 광주지역 민주화세대는 자기 지역이 부산보다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가장 큰 반면, 부산지역 민주화세대는 자기 지역이 광주보다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가장 커서, 이들 세대에서 지역 간 여론지각 편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림 4>에서 보듯이 지역적 이해관계가 걸린 공소시효 연장에서는 실제의견에서도 세대별 지역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세대별 차이의 정도는 거의 유사하였다. 자기 지역여론 지각에서는 세대별로 지역 간 차이가 모두 유의미하였으며, 그 차이는 민주화세대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즉 부산지역 민주화세대는 자기 지역 여론이 가장 보수적이라고 지각하는 반면, 광주지역 민주화세대는 자기 지역 여론이 가장 진보적이라고 지각하여 그 차이가 가장 컸다. 타 지역 여론지각에서도 역시 모든 세대에서 지역 간 차이가 유의미했는데, 산업화세대에서 그 차이가 가장 크고 디지털세대에서 가장 작게 나타나 젊은 세대일수록 타 지역 여론에 대한 지각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이슈에 대한 지각편향은 세 차원 모두에서 세대별로 지역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민주화세대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디지털세대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산지역 민주화세대는 자신이 자기 지역보다 진보적이고, 타 지역보다는 보수적이며, 자기 지역이 타 지역



+ p<.1, * p<.05, ** p<.01, *** p<.001

<그림 4> 지역이슈에 대한 세대별 지역 간 여론, 여론지각, 지각편향의 차이(평균)

보다 보수적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부산지역 다른 세대보다 가장 컸으며, 반대로 광주지역 민주화세대는 자신이 자기 지역보다는 보수적이고, 타 지역 보다는 진보적이며, 자기 지역이 타 지역보다 진보적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광주지역 다른 세대보다 가장 컸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지역적 이해관계가 없는 이슈의 경우, 세대별 지역 간 차이는 실제 여론의 차이가 아니라 여론지각의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타 지역 여론지각에서는 세대별 지역 간 차이가 디지털세대로 올수록 약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지역 여론지각과 세 가지 차원의 지각편향 모두는 민주화세대에서 지역 간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디지털세대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디지털세대에서 지역 간 여론지각 및 편향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을지라도 민주화세대는 산업화세대보다 지역 간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 세대가 젊어질수록 지역 간 여론양극화가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5) 여론, 여론지각, 지각편향에 대한 지역과 세대의 영향력 비교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역과 세대 간 차이는 이슈에 따라, 여론양극화 차원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여론양극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즉 인구학적 변인(성, 학력, 소득), 정치태도 변인(정치관심, 정치성향), 뉴스미디어 이용 변인(신문 열독량, 시사보도 시청량, 인터넷뉴스 이용량), 지역감정 변인(타 지역민 인식, 타 지역민 경험, 타 지역민 포용성)을 통제하고도 지역과 세대가 여론, 여론지각, 지각편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1) 여론에 대한 지역과 세대의 영향력

먼저 불법도청 내용 공개 여론에 대한 전체 모델의 설명력은 .043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신문 열독량이

<표 6> 전국이슈 및 지역이슈 의견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구 분		전국이슈	지역이슈
		β	β
인구학적 변인	성별(남성)	.004	-.083+
	학력	.022	.016
	소득	-.069	-.019
정치태도 변인	정치관심	.066	.173***
	정치성향	.016	.141**
뉴스미디어이용	신문 열독량	-.104*	-.129**
	시사보도 시청량	.018	-.042
	인터넷뉴스 이용량	-.087+	-.055
지역감정 변인	타 지역민 인식	.025	.121*
	타 지역민 경험	.044	-.001
	타 지역민 포용	-.052	-.050
지역	지역(부산)	.009	-.129**
세대	디지털세대	.171*	.083
	민주화세대	.088	.111*
R ²		.043+	.120***

+ p < .1, * p < .05, ** p < .01, *** p < .001

적을수록 불법도청 내용 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104, p < .05$), 인터넷뉴스 이용량은 미약하나마 전국이슈에 대한 여론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유의미한 영향변인이 아니었으나 디지털세대는 불법도청 내용 공개 찬성에 유의미한 설명변인이었다($\beta = .171, p < .05$).

공소시효 연장 이슈의 경우 전체 모델의 설명력은 .120으로 유의미하였다($F = 4.908, p < .001$).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beta = .173, p < .001$),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beta = .141, p < .01$), 신문 열독량이 적을수록($\beta = -.129, p < .01$), 타 지역민에 대해 잘 알고 있을수록($\beta = .121, p < .05$) 공소시효 연장에 찬성하였다. 지역 중에서는 부산시민이 광주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찬성도가 낮았으며($\beta = -.129, p < .01$), 세대 중에서는 민주화세대($\beta = .111, p < .05$)의 찬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여론지각에 대한 지역과 세대의 영향력

특정 이슈에 대한 개인의 의견은 여론지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전국이슈와 지역이슈 각각에 대한 개인의견을 찬성집단, 중립집단, 반대집단으로 나누어 가변인으로 만든 후 의견집단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전국이슈에 대한 자기 지역 여론지각에 대한 전체 모델의 설명력은 .330으로 유의미하였다($F = 15.174, p < .001$). 구체적으로 남성은 자기 지역의 찬성도를 낮게 지각하였고($\beta = -.104, p < .05$), 정치적 관심이 많을수록 자기 지역여론의 찬성도를 높게 지각했다($\beta = .094, p < .05$). 자신의 의견을 기준으로 할 때, 찬성집단은 자기 지역여론 역시 찬성인 것으로($\beta = .340, p < .001$), 반대집단은 자기 지역여론이 반대인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beta = -.241, p < .001$). 지역 중에서는 부산지역이 자기 지역여론의 찬성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했다($\beta = -.133, p < .01$). 한편 전국이슈에 대한 타 지역 여론지각에서는 전체 모델의 설명력이 .175로 유의미하였고($F = 6.251, p < .001$), 시사보도프로그램 시청량이 적을수록($\beta = -.098, p < .05$), 공소시효 연장에 찬성하는 집단($\beta = .166, p < .01$)과 부산지역에서($\beta = .220, p < .001$) 각각 타 지역 여론이 찬성

<표 7> 전국이슈 및 지역이슈 여론지각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구 분		전국이슈		지역이슈	
		자기 지역 여론지각	타 지역 여론지각	자기 지역 여론지각	타 지역 여론지각
		β	β	β	β
인구학적 변인	성별(남성)	-.104*	-.052	-.055	-.024
	학력	-.005	.032	-.094+	-.075
	소득	-.022	-.085	.011	.047
정치태도 변인	정치관심	.094*	.002	.094*	.014
	정치성향	.036	.069	-.016	.043
뉴스미디어이용	신문 열독량	.004	.049	.029	.007
	시사보도 시청량	-.019	-.098*	.011	-.045
	인터넷뉴스 이용량	-.044	-.025	.037	-.054
지역감정 변인	타 지역민 인식	.021	.069	.013	.054
	타 지역민 경험	.032	.063	.021	.060
	타 지역민 포용	-.001	.068	-.058	.024
의견집단	찬성집단	.340***	.166**	.301***	.189**
	반대집단	-.241***	-.160**	-.285***	-.137*
지역	지역(부산)	-.133**	.220***	-.246***	.310***
세대	디지털세대	.027	.038	.126*	.165*
	민주화세대	.041	.015	.036	.083
R ²		.330***	.175***	.404***	.210***

+ p < .1, * p < .05, ** p < .01, *** p < .001

에 가깝다고 인식하였다. 반면에 공소시효 연장에 반대하는 집단은 타 지역 여론을 반대쪽에 가까운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beta = -.160, p < .01$). 이러한 결과는 찬성집단과 반대집단 모두 거울반사인식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지역이슈에 대한 여론지각을 살펴보면 자기 지역 여론지각에 대한 모델의 설명력은 .404로 상당히 높았으며($F = 20.735, p < .001$), 정치에 관심이 많을수록($\beta = .094, p < .05$), 자신의 의견이 찬성인 집단에서($\beta = .301, p < .001$), 디지털세대($\beta = .126, p < .05$)가 공소시효 연장에 대한 자기 지역 여론의 찬성도를 높게 지각했다($\beta = .126, p < .05$). 반대로 자기의견이 반대인

집단($\beta = -.285, p < .001$)과 부산시민들($\beta = -.246, p < .001$)은 지역이슈에 대한 자기 지역 여론의 찬성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하였다. 한편 타 지역 여론지각의 경우 전체 모델의 설명력은 .210으로 유의미하였다($F = 7.773, p < .001$). 자신의 의견이 찬성인 집단($\beta = .189, p < .01$)과 부산지역($\beta = .310, p < .001$), 그리고 디지털세대($\beta = .165, p < .05$)가 타 지역 여론이 찬성일 거라고 지각한 반면, 공소시효 연장에 반대하는 집단은 타 지역 여론의 찬성도를 낮게 지각하였다($\beta = -.137, p < .05$).

(3) 지각편향에 대한 지역과 세대의 영향력

지각편향도 마찬가지로 인구학적 변인, 정치태도 변인, 뉴스미디어이용 변인, 지역감정 변인, 의견집단, 지역, 세대 변인을 투입하여 각 변인들의 독립적 예측력을 살펴보았다.

먼저 전국이슈를 살펴보면 첫째, <표 8>에서 보듯이 전국이슈에 대한 자기와 자기 지역여론 간 지각편향을 예측하는 모델의 설명력은 .200으로 유의미하였다($F = 7.690, p < .001$). 구체적인 변인의 영향력에서는 남성의 경우 자기 지역여론보다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지각하였고($\beta = .098, p < .05$), 정치관심이 높을수록 자기 지역여론이 자신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지각하였다($\beta = -.112, p < .05$). 불법도청 내용 공개에 찬성하는 집단은 자신이 자기 지역여론보다 진보적이라는 지각편향을 보였으며($\beta = .271, p < .001$), 반대하는 집단은 자신의 의견이 자기 지역여론보다 보수적이라는 지각편향을 보였다($\beta = -.175, p < .01$). 둘째, 자기와 타 지역 간 지각편향의 경우 모델의 설명력은 .310으로 유의미하였고($F = 13.238, p < .001$), 시사보도 시청량이 많을수록 자신이 타 지역 여론보다 찬성에 가깝다고 지각하였다($\beta = .088, p < .05$). 불법도청 내용 공개에 찬성하는 집단은 타 지역 여론이 자신보다 보수적이라고 지각한 반면($\beta = .352, p < .01$), 불법도청 내용 공개에 반대하는 집단($\beta = -.197, p < .001$)과 부산시민($\beta = -.201, p < .001$)은 타 지역 여론이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지각하였다. 셋째, 자기 지역과 타 지역 간 지각편향의 경우 모델의 설명력은 .223으로 유의미하였고($F = 8.435, p < .001$), 정치관심이 높

<표 8> 전국이슈 및 지역이슈 지각편향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구 분		전국이슈			지역이슈		
		자기 의견 -자기 지역	자기 의견 -타 지역	자기 지역 -타 지역	자기 의견 -자기 지역	자기 의견 -타 지역	자기 지역 -타 지역
		β	β	β	β	β	β
인구 학적 변인	성별(남성)	.098*	.038	-.027	.071	.027	-.001
	학력	.043	-.006	-.015	.085	.049	-.023
	소득	-.002	.057	.069	.035	-.010	-.018
정치 태도 변인	정치관심	-.112*	-.009	.099*	-.038	.044	.063
	정치성향	-.053	-.077+	-.055	.050	-.012	-.057
뉴스 미디어 이용	신문 열독량	-.020	-.056	-.069	-.073	-.035	.010
	시사보도 시청량	.018	.088*	.082+	.011	.051	.054
	인터넷뉴스이용량	.018	-.003	-.025	-.073	.022	.067
지역 감정 변인	타 지역민 인식	.006	-.036	-.061	.027	-.020	-.050
	타 지역민 경험	-.029	-.050	-.035	-.056	-.074	-.033
	타 지역민 포용	.019	-.048	-.069	.076+	-.011	-.073+
의견 집단	찬성집단	.271***	.352***	.152**	.304***	.310***	.094+
	반대집단	-.175**	-.197***	-.092+	-.141**	-.218***	-.139***
지역	지역(부산)	.135**	-.201***	-.369***	.239***	-.306***	-.502***
세대	디지털세대	-.057	-.045	-.035	-.126*	-.135*	-.042
	민주화세대	-.059	-.014	.014	-.013	-.054	-.039
R ²		.200***	.310***	.223***	.234***	.374***	.341***

+ p < .1, * p < .05, ** p < .01, *** p < .001

을수록($\beta=.099, p<.05$), 자신의 의견이 찬성인 집단($\beta=.152, p<.01$)에서 자기 지역여론이 타 지역 여론보다 찬성에 가깝다고 지각하였다. 부산시민은 타 지역 여론이 자기 지역여론보다 찬성에 가깝다고 지각하였다($\beta=-.369, p<.001$).

다음으로 지역이슈에 대한 지각편향을 살펴보면, 첫째, 자기와 자기 지역여론 간 지각편향에서 모델의 설명력은 .234로 유의미하였다($F=9.315, p<.001$). 구체적인 투입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공소시효 연장에 찬성하

는 집단($\beta=.304, p<.001$)과 부산시민들($\beta=.239, p<.001$)이 자신이 자기 지역여론보다 찬성 정도가 더 높다고 지각하였으며, 공소시효 연장에 반대하는 집단($\beta=-.141, p<.01$)과, 디지털세대($\beta=-.126, p<.05$)는 자기 지역여론이 자신의 의견보다 찬성도가 더 높다고 지각하였다. 둘째, 자기와 타 지역 여론 간 지각편향의 경우 전체 모델의 설명력은 .37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F=17.499, p<.001$), 찬성집단은 자기 의견이 타 지역 여론보다 찬성도가 더 높다고 지각한 반면($\beta=.310, p<.001$), 반대집단($\beta=-.218, p<.001$)과 부산 시민($\beta=-.306, p<.001$), 디지털세대($\beta=-.135, p<.05$)는 그 반대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 지역과 타 지역 여론 간 지각편향에서는 모델의 설명력이 .341로 유의미하였다($F=15.132, p<.001$). 구체적으로 예측변인을 살펴보면, 공소시효 연장에 반대하는 집단($\beta=-.139, p<.001$)과 부산시민들($\beta=-.502, p<.001$)이 타 지역 여론이 자기 지역여론보다 공소시효 연장에 찬성하는 정도가 더 높다고 지각하는 진보편향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지역과 세대가 두 지역의 여론양극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뭇 다를 수 있다. 먼저 지역은 실제 여론에 있어서는 이슈의 성격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다. 실제 여론에서 지역의 영향력은 지역적 이해관계를 담고 있는 이슈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여론지각과 지각편향에서 지역은 개인의견의 영향력보다 그 정도는 약하지만 모든 차원에서 유의미한 예측력을 지닌 변인이다. 이처럼 지역의 영향력은 실제 여론보다는 여론지각과 지각편향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 반면 세대의 경우는 실제 여론을 예측하는 데에는 전국적 이슈나 지역 이슈 모두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즉 전국이슈의 경우에는 디지털세대의 예측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역이슈에서는 민주화세대의 예측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지각의 경우 지역이슈에서만 디지털세대가 자기 지역과 타 지역 여론이 진보적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런데 지각편향의 결과는 다소 모호하다. 지각편향에서, 지역이슈에서만 디지털세대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데, 자신을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부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디지털 세대의 경우, 다른 세대보다 지역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로 낮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다른 세대의 경우, 자기 지역 여론과 타 지역 여론지각에서 지역에 따라 편향의 정도와 방향 모두 다르게 나타나지만, 디지털 세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역 간 차이가 크지 않다. 따라서 두 지역의 세대가 합쳐질 경우 다른 세대들은 특정방향으로 나타나는 세대만의 독특한 경향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반면, 디지털세대의 경우에는 지역 간 상쇄효과가 비교적 적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두 지역의 세대가 합쳐져도 디지털 세대는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자신이나 자기 지역여론이 타 지역 여론보다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편향이 더 적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병폐로까지 일컬어지는 지역 간 여론양극화 현상이 어떠한 양태로 존재하는지, 새로운 양극화 변수로 떠오른 세대 간 차이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에 어떠한 변화를 줄 것인지를 검토하고 여론양극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적 이해관계가 없는 전국이슈인 불법도청 내용 공개에 대해서 지역 간 여론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여론지각과 지각편향에서는 지역 간 차이가 유의미하여 여론양극화 현상이 실제의견에 근거한 것이기보다는 지각된 여론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역적 이해관계가 걸린 공소 시효 연장문제에 대해서는 예측했던 대로 지역 간 여론차이가 나타났다. 여론지각과 지각편향 차원에서 지역 간 차이가 존재했으나 그 차이는 지역이슈에 대한 실제 여론의 차이보다 더 심했고, 전국이슈의 지역 간 여론지각과 지각편향의 차이보다도 그 정도가 더 심했다. 전국이슈와 지역이슈 모두에 대해 부산시민들은 광주지역 여론이 자신과 유사하며, 부산지역 여론은 자신보다 보수적이라는 보수편향을 보였으며, 광주지역이 자기 지역보다 진보적이라고 지각하였다. 반면에 광주시민들은 광주지역여론을 정확하게 지각하

고 있었으며, 부산지역 여론이 자신이나 자기 지역여론보다도 보수적이라고 지각하는 보수편향을 보여주었다.

전국이슈와 지역이슈에 대한 실제의견과 지각의견의 분포도를 비교한 결과 이슈와 관계없이 부산의 실제의견 분포는 약한 쌍봉분포를 보인 반면, 부산시민이 지각하는 부산지역 여론과 광주시민이 지각하는 부산지역 여론 모두 정상분포를 보였다. 이는 사람들이 의견 분포를 지각할 때 정상분포를 지향하는 일종의 편견이 있다는 니스벳과 쿤다(Nisbett & Kunda, 1985)의 연구와 일치한다. 광주의 경우 실제의견과 지각여론 모두 S자형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 두 이슈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이 뚜렷함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지역 간 여론, 여론지각, 지각편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지역 간 여론양극화 현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역 간 실제의견 차이는 지역적 이해관계가 있는 이슈의 경우에만 존재하지만 여론지각에서는 이슈와 관계없이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났고, 지역 간 차이 정도는 여론지각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 간 여론양극화 현상이 실제의견의 차이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각된 여론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둘째, 지역 간 여론차이에 대한 지각은 부산과 광주 모두 공통적으로 부산 지역 여론이 광주지역 여론보다 보수적이라고 지각했지만, 자기 지역 여론에 대한 지각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즉 부산시민들은 자기 지역여론이 자신보다 보수적이라고 지각하는 보수편향을 보였지만, 광주시민들은 자기 지역여론이 자신과 유사할 것이라는 거울반사인식 경향을 보였다.

셋째, 동일지역에 대한 여론지각은 지역 간에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슈와 관계없이 부산지역 여론에 대한 부산시민의 지각여론과 광주시민의 지각여론이 유사하고, 광주지역 여론에 대한 부산시민의 지각여론과 광주시민의 지각여론이 유사하였다. 자신이 속해 있지 않은 외부집단의 의견 분포를 추정하는 데는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Quattrone & Jones, 1980), 지역 간 여론추정이 동일한 것은 부산과 광주지역 시민들이 상대 지역에 대해 일종의 스테레오타입화된 상(picture)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태도나 믿음이 여론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넷째, 타 지역에 대한 여론지각에서는 광주가 부산보다 더 큰 차이를 보였다. 광주시민들은 자신의 의견과 자기 지역의 여론이 모두 부산지역의 여론보다 진보적이라고 인식하는 편향을 보였는데, 편향의 정도 역시 부산시민보다 더 컸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동질성이 더 높은 광주시민들이 자기 지역의 여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하는 반면, 부산지역 여론을 인식할 때는 여론의 인식에 있어서는 뚜렷한 보수편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세대별 여론양극화 현상을 살펴보면 전국이슈와 지역이슈 모두 여론, 여론지각, 지각편향에서 세대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각편향의 경우 디지털세대는 전국이슈와 지역이슈 모두에 대해 자신보다 자기 지역민과 타 지역민이 더 보수적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민주화세대는 전국이슈에 대해서는 자신보다 타 지역민이, 지역이슈에 대해서는 자신보다 자기 지역민과 타 지역민이 보수적이라고 지각하였다. 산업화세대는 전국이슈와 지역이슈 모두에 대해 자신보다 자기 지역민이나 타 지역민이 더 보수적이라고 지각하여 모든 세대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보수적이라는 보수편향을 일관되게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자신과 자기 지역 또는 자신과 타 지역 간 여론지각에서는 지각편향이 존재했지만 지역과 지역 간의 여론지각에서는 이슈에 따라, 세대에 따라 지각편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지역적 이해관계가 없는 이슈의 경우 모든 세대가 부산지역 여론과 광주지역 여론이 차이가 없다고 지각하였지만 지역적 이해관계가 있는 이슈의 경우에는 디지털세대와 산업화세대가 타 지역 여론이 자기 지역여론보다 보수적이라고 인식하는 지각편향을 보였다.

세대별 의견 분포를 살펴보면 지역적 이해관계가 없는 전국이슈의 경우 실제의견 분포는 세대 모두 유사한 형태를 보였지만, 여론지각에서는 디지털세대와 산업화세대가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반면에 지역적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이슈의 경우 실제의견 분포는 디지털세대와 민주화세대가 서로 유사한 형태를 띠었고, 여론지각에서도 디지털세대와 민주화세대가 보다 유사한 의

견 분포를 보였다. 이것은 디지털세대와 민주화세대가 실제의견과 지각여론 모두에서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론 및 여론지각에서 두 세대 간 차이가 산업화세대와의 차이보다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여론, 여론지각, 지각편향에서 나타난 지역 간 차이가 젊은 세대로 올수록 완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과 세대를 교차하여 비교하였다. 전국이슈에 대한 실제여론이 세대별로 지역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고, 전국이슈에 대한 여론지각과 지각편향, 그리고 지역이슈에 대한 실제여론, 여론지각, 지각편향 모두는 모든 세대에서 지역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여론양극화 현상이 심리적·인지적 차원에서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민주화세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정치적 격동기에 청년시절을 보낸 민주화세대가 정치적 갈등을 가장 깊게 경험하였고, 이러한 경험이 지역 간 여론양극화현상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만든 계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진보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보수편향을 가지고 있는데(Fields & Schuman, 1976), 지배적인 규범이나 가치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광주지역 민주화세대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자신보다 보수적이라고 지각하는 보수편향이 다른 세대에 비해 더 심한 반면, 지배적 규범이 보수적인 부산지역 민주화세대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자신보다 진보적이라는 진보편향이 더 심해 결과적으로 민주화세대에서 지역 간 여론지각 및 지각편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여론양극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지역과 세대가 여론양극화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전국이슈와 지역이슈에 대한 실제의견에 대해서는 각각 디지털세대와 지역이 유용한 설명변인이었으나 디지털세대는 전국이슈에 대해 찬성이, 부산시민들은 광주시민들보다 상대적으로 지역이슈에 대한 반대가 높아 그 영향의 방향이 반대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여론지각에서는 전국이슈와 지역이슈 모두 개인의견과 지역이 매우

영향력 있는 설명변인이었으며, 그 방향도 이슈나 여론지각 준거집단과 관계 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즉 이슈와 관계없이 두 이슈 각각에 대해 찬성하는 집단은 자기 지역여론이나 타 지역 여론이 모두 찬성쪽에 가깝다고 지각하였으며, 두 이슈에 반대하는 집단은 자기 지역여론이나 타 지역 여론 모두 상대적으로 찬성 정도가 낮을 것이라고 지각하여 두 집단 모두 거울반사인식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또한 부산지역은 이슈와 관계없이 자기 지역 여론은 반대쪽 경향을 지니며, 타 지역 여론은 찬성쪽 경향을 지닐 거라는 지각패턴을 보였다.

셋째, 지각편향에서도 이슈와 관계없이 개인의 의견과 지역이 유의미한 설명변인이었다. 두 이슈에 각각 찬성하는 집단은 자신이 자기 지역여론이나 타 지역 여론보다 찬성에 가까우며, 자기 지역여론이 타 지역 여론보다 찬성에 가깝다고 지각하는 보수편향을 일관적으로 나타냈다. 이와 대조적으로 두 이슈 각각에 반대하는 집단은 자신의 의견이 자기 지역여론이나 타 지역 여론보다 상대적으로 반대에 가까우며, 자기 지역여론이 타 지역 여론보다 반대에 가깝다고 지각하는 진보편향을 보였다. 지역의 경우 부산시민은 이슈와 관계없이 자신이 자기 지역보다 진보적이라고 지각하는 보수편향을 보였고, 자신이 광주지역 여론보다는 보수적이라고 지각하는 진보편향을 보였으며, 부산지역 여론이 광주지역 여론보다 보수적이라고 지각하는 진보편향을 보였다.

넷째, 세대는 여론지각과 지각편향 모두에서 지역이슈에서만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먼저 여론지각에서 디지털 세대는 자신을 자기 지역보다, 그리고 자기 지역을 상대 지역보다 진보적으로 인식하는 보수편향을 유의미하게 보여주었다. 반면 다른 세대들의 예측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지각편향에서도 디지털 세대만이 유의미한 변인이었는데, 예측의 방향은 여론지각의 결과와 반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의 영향력을 지역변인과 함께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같은 세대라도 지역에 따라 편향의 정도와 방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디지털 세대는 다른 세대들에 비해 지역에 따른 차이가 비교적 적게 나타나는 집단이다. 따라서 디지털 세대는 지역의 영향력

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두 지역 모두에서 디지털 세대는 자신이 타 지역시민들에 비해, 그리고 자기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더 진보적이라는 편향을 상대적으로 더 적게 나타내는 집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기존 연구들에서 여론이나 여론지각, 지각편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뉴스미디어 이용은 여론양극화를 예측하는 데 설명력 높은 변인이 아니었다. 신문 열독량이 많을수록 전국이슈와 지역이슈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이 두 이슈에 대한 두 일간지의 논조가 찬성보다는 반대에 가까웠기 때문일 거라고 추론할 수 있다. 시사보도프로그램 시청의 경우 시청량이 높을수록 전국이슈에 대한 타 지역 여론이 반대경향을 띠 것이라고 지각하였다. 지역적 이해관계가 없어 타 지역 여론을 가늠해보기 어려운 이슈의 경우 텔레비전 시사보도프로그램이 여론지각의 주요 소스로 작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텔레비전 보도가 불법도청 내용 공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경우 타 지역 여론 역시 반대의견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이와 동일선상에서 시사보도프로그램 시청량이 많을수록 자신이 타 지역 여론보다 전국이슈에 대해 더 찬성한다고 지각하는 경향도 설명이 가능하다. 즉, 타 지역 여론을 정확히 모른 채 텔레비전 보도가 반대 입장을 보도하면 타 지역 여론이 자신보다 반대입장에 있다고 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젊은 세대의 상징이라 할 인터넷뉴스 이용은 여론양극화의 세 차원 모두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이 아니었다. 이는 인터넷뉴스가 여론형성이나 여론지각 매체로서 기능하고 있지 못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이 일상화된 디지털세대가 정치세력으로 부각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지역 간 여론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는 시기상조임을 알 수 있다. 강내원(2004)의 연구에서 세대 간 뉴스미디어 이용이 시민참여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듯이, 뉴스미디어 이용이 여론지각 및 지각편향, 나아가 여론형성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우리나라 여론양극화를 설명하는 주요한 변수

인 지역은 실제 여론보다도 여론지각이나 지각편향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여전히 유용한 변인이었다. 15년의 격차를 두고 지역주의와 지역갈등에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한 정기선의 연구(2005)에서 영호남 간의 비선호도는 변하지 않았고 모든 지역민들이 내집단 편애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민의 서로에 대한 감정과 인지가 변하지 않는 한, 지역에 기반한 여론지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여론지각이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은 여론양극화 현상 역시 완화되지 않을 수 있다. 더구나 젊은 세대로 올수록 지역 간 여론양극화 현상이 약해질 거라고 기대했으나, 디지털세대에서 지역 간 여론양극화 현상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결과를 제외하고 세대별로 지역 간 차이는 여전히 크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 간 여론양극화가 세대에 의해 쉽게 극복되기 어려운 현상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16대 대통령선거 이후 세대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지만, 지역 간 차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문제를 세대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이 연구 결과가 상기시켜주고 있다.

Ⅰ 참고문헌

- 강내원 (2004). 인터넷과 대중매체 이용이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대 집단 간 비교. 『한국언론학보』, 48권 3호, 116~143.
- 김영경 (1999). 한국의 정치세대에 관한 경험적 연구: ‘민주화세대’와 ‘신세대’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41호, 119~133.
- 김유경 (2001). 『가상공간에서의 정치적 숙의: 가상공간 내 정치토론이 의견의 질과 여론형성과정에 대한 지각, 그리고 정치적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혜숙 (1988). 지역 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 - 세대 간 전이가 존재하는가?. 한국심리학회(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123~169쪽). 서울: 성원사.
- 박재홍 (2003). 세대 개념에 관한 연구: 코호트적 시각에서. 『한국사회학』, 37집

3호, 1~23.

- 박정순·원우현·김정탁 (1987). 다원적 무지현상과 제 3자 효과에 대한 논의: 남북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와 여론인식의 사례 연구. 『신문학보』, 22호, 5~28.
- 박정순 (1989). 지역감정 문제의 본질: 실상과 상상. 『사회과학 연구』, 경북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 박정순 (1990). 커뮤니케이션과 지역감정. 『신문학보』, 25호, 35~74.
- 오미영 (2005).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여론지각에 있어서 대인 커뮤니케이션, 매스미디어 그리고 인터넷의 역할에 관한 연구: 다원적 무지가설(Pluralistic Ignorance)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5권 1호, 195~230.
- 이준웅 (2001). 여론환경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의견 표명: 제 16대 총선 예측조사 실패에 대한 정치 커뮤니케이션적 논의. 『한국방송학보』, 제15권 제1호, 199~236.
- 이준한·임경훈 (2004). 과연 ‘중대선거’인가? -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유권자 투표결정요인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13권 제2호, 117~141.
- 정기선 (2005). 지역감정과 지역갈등인식의 변화: 1988년과 2003년 비교. 『한국사회학』, 제39집 2호, 69~99.
- 정진민·황아란 (1999).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정치: 세대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3권 2호, 115~134.
- 한혜경 (2003). 여론지각매체로서 인터넷에 관한 연구: 디지털조선과 오마이뉴스 독자집단의 의사합의 지각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7권 4호, 5~33.
- 홍덕률 (2003). 한국사회의 세대연구. 『역사비평』, 64호, 150~191.
- 네티즌의 정치학, 그 새로운 패러다임(1): 펴질의 정치학. (2003. 1). 『딴지일보』, 95호.
- 대선을 읽는다(1) 월드컵처럼 선거 치른 20-30대. (2002. 12. 21). 『조선일보』, 1면, 9면.
- 2030파워 사회를 바꾼다 (2002. 12. 21). 『중앙일보』, 1면.

Crane, M. (1982). Perception of public opinion, Doctori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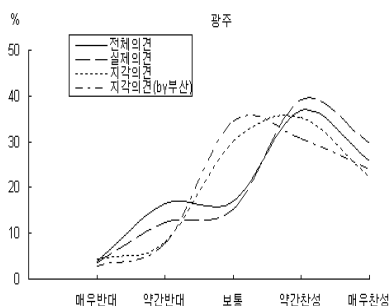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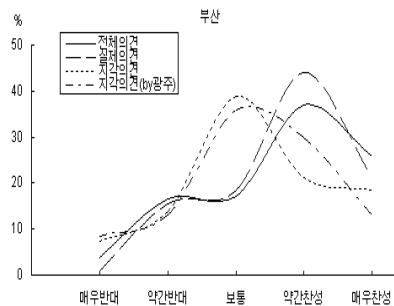
- Dawes, R. M. (1989). Statistical criteria for establishing a truly false consensus effec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 1~17.
- Fields, J. M., & Schuman, H. (1976). Public beliefs about the beliefs of the public. *Public Opinion Quarterly*, 40, 427~448.
- Glasser, T. L., & Salmon, C. T. (Eds.). (1995). *Public opinion and the communication of consent*.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Glynn, C. J. (1989). Perception of others' opinions as a component of public opinion. *Social Science Research*, 18, 53~69.
- Gunther A. C., & Christen, C. T. (2002). Projection or persuasive press? Contrary effects of personal opinion and perceived news coverage on estimates of public opinion. *Journal of Communication*, 52(1), 177~195.
- Joslyn, M. R. (1999). Perceiving public opinion of political fig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2(30), 213~232.
- Katz, D., & Allport, F. H. (1931). *Students' attitudes: A report of the Syracuse University reaction study*. Syracuse, NY: Craftsman.
- Marks. G., & Miller, N. (1987). Ten years of research on the false-consensus effect. *Psychological Bulletin*, 102(10), 72~90.
- Mutz, D. C. (1998). *Impersonal influence: How perceptions of mass collectives affect political attitudes*. 양승찬 역 (2000). 『미디어 정치효과: 비개인적 영향력』. 서울: 한나래.
- Mutz, D. C., & Martin, P. S. (2001). Facilitating communication across lines of political difference: The role of mass medi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1), 97~114.
- Nisbett, R. E., & Kunda, Z. (1985). Perception of social distribu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2), 297~311.
- Noelle-Neumann, E. (1993). *The spiral of silence: Public opinion-our social skin*(2nd ed),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oelle-Neumann, E. (1995). Public opinion and rationality. In T. L. Glasser and C. T. Salmon (Eds.), *Public opinion and the communication of consent* (pp. 33~54). NY: The Guilford Press.
- O'Gorman, H. J., & Garry, S. L. (2001). Pluralistic ignorance: A replication and

- extension. *Public Opinion Quarterly*, 40, 449~458.
- Quattrone, G. A., & Jones, E. E. (1980). The perception of variability within in-groups and out-groups: Implications for the law of large numb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141~152.
- Ross, L., Greene, D., & House, P. (1977). The false consensus effect: An egocentric bias in social perception and attribution process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279~301.
- Scheufele, D. A., & Eveland Jr., W. P. (2001). Perception of 'public opinion' and 'public' opinion exp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3(1), 25~44.
- Scheufele, D. A., & Moy, P. (2000). Twenty-five years of the spiral of silence: A conceptual review and empirical outlook.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2(1), 3~28.
- Willnat, L, Lee, W., & Detenber, B. H. (2002). Individual-level predictors of public outspokenness: A test of the spiral of silence theory in Singapor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4(4), 391~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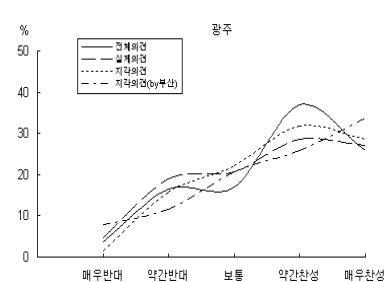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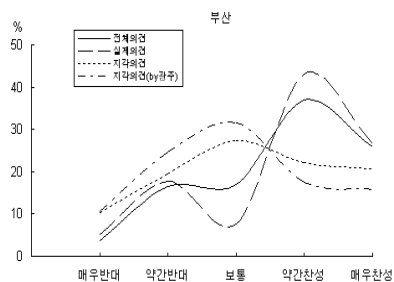
(최초 투고 2007.6.1, 최종 원고 제출 2007.8.2)

〈부록〉 세대별 전국이슈 및 지역이슈에 대한 의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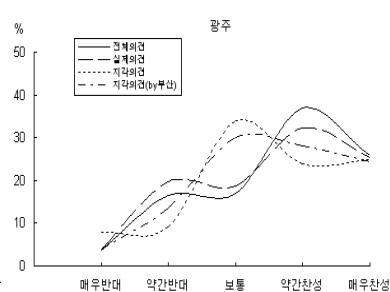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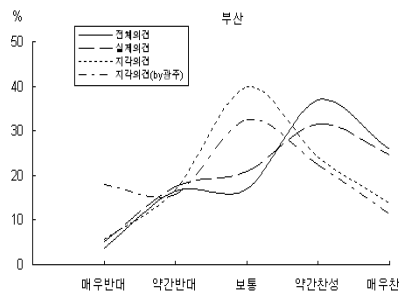
전국이슈에 대한 의견 분포(디지털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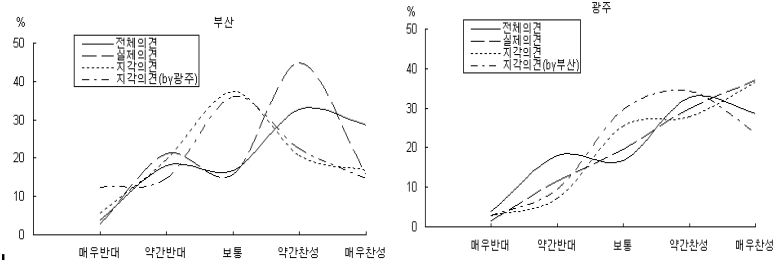
전국이슈에 대한 의견 분포(민주화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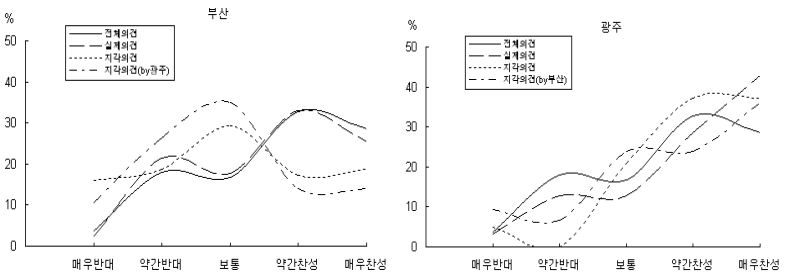
전국이슈에 대한 의견 분포(산업화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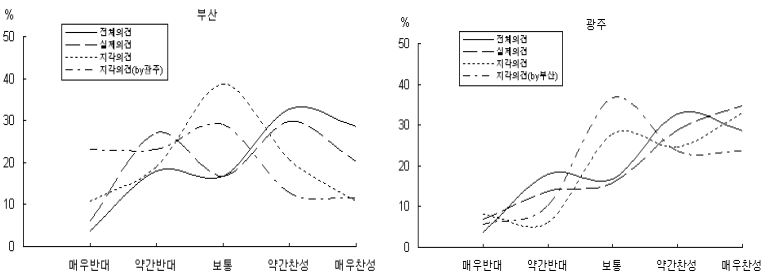
지역이슈에 대한 의견 분포(디지털세대)



지역이슈에 대한 의견 분포(민주화세대)



지역이슈에 대한 의견 분포(산업화세대)



The Polarization of Public Opinion and the Influential Factors on the Polarization between Pusan and Gwangju

Sun-Hee Park

Associate Professor

Dept. of Journalism & Communications, Chosun University

Hye-Kyoung Han

Assistant Professor

Dept. of Mass Communi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polarization of public opinion by regionalism is one of biggest problems in Korean society.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polarization of public opinion between two typical cities representing regionalism and explore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polariz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polarization of public opinion is based on the perceived public opinion rather than the real public opinion. The polarization of public opinion is greater with regional issue than national issue. In general, citizens of Pusan have a conservative bias in estimating other Pusan citizens' opinion and a liberal bias in estimating Gwangju citizens' opinion, whereas citizens of Gwangju have a looking-glass perception in estimating other Gwangju citizens' opinion and a conservative bias in estimating Pusan citizens' opinion.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real public opinion and the perceived opinion across three generations. But within each generation, the tendency of public opinion polarization is found between regions and is not shown to change over generations. Regression analyses show that individual's opinion and region are highly predictable variables that explain the perceived public opinion and the perception bias such as false consensus and pluralistic ignorance.

Key words: polarization of public opinion, public opinion, perceived public opinion, perception bias, region, generation